

## Translated Remarks by Kim Jeong-sam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I am Kim Jeong-sam, the elder brother of missionary Kim Jung-wook, who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11 years, and whose currently unknown fate aches my heart. A few years ago, I survived a heart attack by the grace of God and continue to take heart medication and wear a bracelet containing nitroglycerin capsules just in case.

저는 선교를 하던 동생이 북한에 11년째 억류 중이며 현재 생사를 확인 못해 애타고 있는 김정욱 목사의 형 김정삼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지금도 심장약을 먹으며 만약을 대비히 니트로글리세린 캡슐이 들어있는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Nevertheless, I dropped everything and traveled to the other side of the globe to New York to attend today's event at the opening of the UN General Assembly solely to appeal for your help in ascertaining the fate of my brother and other missionaries detained in North Korea and securing their return.

그럼에도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유엔 총회 개회에 맞춰 열리는 오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오직 동생과 북에 억류된 다른 선교사님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I believe all the families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abductees, detainees, and POWs gathered here have the same thought at heart. As do the North Korean escapees whose families were repatriated from China to North Korea and the Korean American who has family in North Korea.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all of you.

이 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은 모두 마음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에서 북송된 가족을 둔 탈북자,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교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과 기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합니다.

Before coming to New York, I had a chance to meet with detained missionary Kim Kook-kie's wife and Choi Chun-gil's son in Suncheon to console each other and hold worship together. We prayed with all our hearts for their speedy return to their loving families.

뉴욕에 오기 전 순천에서 북에 억류 중인 김국기 선교사님 사모님과 최춘길 선교사님 아들과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며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Jung-wook is four years younger than me. But Jung-wook was so full of energy and hot-tempered from when he was young that he would fight a good fight with me.

정욱이는 저보다 네 살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정욱이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씩씩하고 성깔이 있어서 저와 싸움박질도 했습니다.

Jung-wook grew up to be a pastor of strong conviction and responded obediently to the calling from God: “Why do you not love the starving North Koreans that I love?” In Dandong, China, which is right across the Yalu River from North Korea, Pastor Kim Jung-wook invited haggard-looking North Koreans to church to restore them with love and to preach the gospel.

정욱이는 강한 신념을 가진 목사가 되었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내가 사랑하는데 너가 사랑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김정욱 목사는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인 중국 단둥에서 초철했한 몰골의 북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But after the Chinese police raided his church to arrest and repatriate North Koreans under his care, missionary Kim Jung-wook was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Eventually, he fell victim to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s plot and ended up being detained in North Korea.

그러나 중국 경찰이 교회를 급습하여 그가 보살피던 북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북송해버리자 김정욱 선교사는 이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피임에 넘어가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In Jeremiah 29:11, the Lord says, “For I know the thoughts that I think toward you, ... thoughts of peace and not of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But North Korea prescribed the thoughts of the Lord as evil and refuses to ascertain the fate of the three missionaries who have only been practicing God’s love. I pray that a day will come when North Korea accepts the future and hope, and the North Korean people enjoy peace and human rights.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님의 생각을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일 뿐인 선교사 세

분의 생사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래와 희망을 받아들이고, 북한 사람들이 평화와 인권을 누릴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I heard that North Korea's UPR will take place on November 7. I ask you to urge North Korea to clarify the fate of all abductees, detainees, and POWs, including missionaries Kim Jung-wook, Kim Kook-kie, and Choi Chun-gil, and demand their immediate release and return.

11월 7일 북한 UPR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포함한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 확인을 촉구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과 송환을 요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When Jung-wook was in middle school in Uljin, he and his friends fell into a reservoir when the ice sheet covering the reservoir cracked in late winter. Because there was nothing like mobile phones at the time, it took a long time for us to know whether he survived. This was before I started going to church, but I prayed fervently for his safe return. As if God had heard my prayer, Jung-wook returned home alive.

울진에서 정욱이가 중학교 다닐 때 정욱이와 정욱이 친구들이 늦겨울에 저수지를 덮은 빙판이 깨지면서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정욱이가 살았는지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음에도 정욱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정욱이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Just like then, I pray that Jung-wook and others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by North Korea will be able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Thank you.

그때와 같이 저는 정욱이와 북한에 의해 가족과 강제로 분리된 다른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